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새만금잼버리 성공 개최 협력 다짐

송하진 도지사 “범정부 차원 지원태세 구축돼야” · 정영애 여가부장관 “빠르면 내달 안 정부지원위 개최 준비”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지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13일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북사무소(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내)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 점검에 나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여가부와 전북도가 앞으로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 지사는 이날 “세계잼버리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제고는 물론 내수 회복에도 힘을 보탬 수 있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4월 7일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국무총리 인준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회의 개최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태세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빠르면 다음달 안에 정부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한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큰 고난의 시기가 빠



정영애(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부안군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전북사무소를 찾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르게 종식되기를 바라며, 이후 청소년 활동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있어 세계잼버리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지원위원회는 ‘잼버리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차원의 지원조

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조직위원장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세계잼버리 관련 주요 정책과 대회 준비와 관련해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로부터 잼버리공원, 매립공사 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호상 기자

수소연료전지 재사용 재처리 기준 사업 선정

전북도-완주군, 195억 사업비 확보

2025년까지 센터·장비구축 등 추진

전북도와 완주군이 수소용품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국내 유일의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의 재사용과 재처리 기준에 관한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소 분야 국내 선도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고 있다.

도와 완주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 구축 공모사업에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은 수소연료전지의 재사용·재처리를 위한 기반과 인증 및 규격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향후, 전북테크노파크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5개 기관 건설기계부품시험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참여해 2025년까지 195억원의 사업비로 센터 및 장비구축, R&D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 3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까지 선정되면서 수소용품 분야, 특히 연료전지 분야에서 전북도(완주군)가 강점을 가지

게 됐다.

도는 특히 수명을 다한 자동차용, 건물용, 발전용 연료전지의 재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연료전지의 인증 평가 등 제반 기준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북을 중심으로 한 연료전지 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게 됐다”며 “전북의 수소산업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대한민국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에 이어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도 선정돼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료전지 인증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북도와 완주군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군산항 위기 극복 가능해지나?

전북도,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본격 착수
비응항 확장 개발도 계획 반영 요청 계획

전북도가 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의 위기 극복과 유류 항만의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야적장 및 중량 잡화부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등 특화개발 계획의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용역이다.

도는 항만 물동량 수요예측과 개발 규모, 환경성 및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산항 7부두 개발계획 변경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0~2030)이 수립·고시된 바 있으나, 도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건의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착수했다.

현재, 군산항 7부두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에 서남권 해상풍력 구조물 등 야적장 건설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이며,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해상 운송을 위해 중량 부두 건설이 절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도내 조선산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중소·특수목적선에 특화된 새로운 전북도 조선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추진’을 위해서도 항만기본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도는 군산해수청과 협업을 통해 비응항 확장 개발사업도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동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는 뉴시어선과 레저선박의 안정적인 집안과 분쟁해소를 위해 해상에서 추진 중인 비응항 확장 개발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산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태권도 체험·지역 여행 ‘동시에’

‘태권투어’ 3종 출시·판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태권도 체험과 지역 여행을 결합한 상품으로 5인 미만 개별 여행에 초점을 둔 ‘태권투어 MY CAR’와 가족·친구를 포함한 소규모 그룹 여행을 위한 ‘태권투어 MY TRAIN’, ‘태권투어 MY BUS’ 등 ‘태권투어’ 3종을 출시하며 판매에 나선다.

태권투어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트렌드가 단체 여행 중심에서 개별 및 소규모 그룹 여행으로의 변화를 반영했다.

지역의 숨겨진 명소와 태권도를 결합하는 등 현지의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 위주 여행을 찾는 MZ 세대를 비롯해 가족·친구 단위 소규모 여행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용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무주와 전주, 완주, 진안 등 전북지역과 김천, 함천, 영동 등 태권도원 인근 지역을 연계한 투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방역 활동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중점을 두어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